

조계종사태 징계 일단락

멸빈 9명등 92명 징계

94년 개혁회의때 비해 두배 '도당형성' 책임몰어 일벌백계

조계종 재심호계원(위원장 원서)이 6일 16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 해 조계종사태 관련 피제소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해종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2월 28일 이후 2개월여만에 조계종사태에 따른 징계가 일단락됐다.

해종특위(위원장 원서)는 모두 1백26명을 조사해 1백3명을 호계원에 제소. 이 가운데 92명(심판권기 등 4명 제외)이 문서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별로는 멸빈 9, 제직 12, 공권징지 5~10년 32, 공권징지 6개월~4년 25, 면직 4, 문서견책 10명이다. 총회의원 7명은 총회의원을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심판진행중 징계회부가 취소됐다.

이같은 징계는 94년 개혁회의 당시 징계와 비교해 수적으로 두 배 가까이 많다. 94년에도 멸빈 9명, 제직 12명이었다. 당시 공권징지는 22명, 면직 2명, 문서견책 13명으로 모두 58명이 징계를 받았다.

94년보다 많게 나타난 것은 당시 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유지·옹호한 사례를 해종행위로 규정한

반면 이번 징계는 '정화개혁회의'라는 도당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정화개혁회의의 계속 유지도 다수의 징계자를 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징계자 중에는 징계중에 정화회의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조·재심호계원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자유로운 변호의 기회가 '해종행위자 옹호'라는 논리로 한때 제약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해종특위 위원장 범종승은 "징계대상자들이 남긴 자료와 참회 정도,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징계기준을 결정했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 징계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호계위원장 원서스님은 "종단의 기강확립과 폭력에 의한 종권쟁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무차별함을 동시에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행·포교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이후 사면 실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적당한 시기에 정화회의의 관련자들에게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는 정화회의의 완전한 해체와 징계당사자들의 참회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사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되, 이 가능성을 활용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원서회장의 외장 탄성스님도 본지와외의 인터뷰(218호, 4월14일자)에서 멸빈자들에게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6일 재심호계원에서 판결보류 또는 심리연기된 4명의 피제소자에 대해서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재심심판부가 열어 판결 확정 또는 사면을 계속한다. 해종특위는 피제소자의 징계가 전원 확정되면 자동해제됨에 따라 해체 시기는 6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교TV 정상화' 조계종 대책 골몰

본말사 소유주식 총무원에 양도추진

태응스님 보유 37% 위임여부 변수될듯

조계종이 불교TV 살리기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불교TV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계종 btm특위(위원장 정효스님)는 7일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 교구 본말사 종도들이 보유한 주식을 총무원에 양도하도록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btm특위에서는 또 △ btm 현 경영진과 대주주 및 btm특위가 협력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되 △10일 주주총회에서 임시 대표를 선출해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앞서 btm특위는 4일 조계종 관료조사할 주지 회의 등을 통해 주권을 위임받았다. 이같은 움직임은 조계종이 불교TV에 대해 종단 소유의 주식을 가능한 많이 모아 경영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btm특위는 4일 위원장 정효스님과 간사인 법안스님이 고산 총무원장스님을 방문해 불교TV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날 이후 주권 위임에 나섰다. 종단의 방침이 정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종단이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참여한 경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태응스님의 향방이다. 태응스님(불교TV 회장)은 통도사 본말사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주)성원자본을 합쳐 불교TV 전체 주식중 3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아주 불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달 7일 열린 btm특위에서 태응스님은 "종단이 경영을 맡는다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시련한 해법은 10일 주총이 쥐고 있다. 조계종의 '해법'도 이날 밝혀진다. 또 정계식 씨의 자금지원 포기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문도 사장이 대안을 제시하며 대표이사 선임을 고수하게 될 것인지는 주목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시일이 걸릴뿐 종단화합 이뤄진다"

조계종 고산총무원장 기자간담회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계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산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성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교계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히 고산스님은 조계종사태 관련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실시를 거듭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요지.



시면·종단화합 저는 재관이 진행중이어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실시할 사면에서 제외됐다. 적당한 시기를 봐서 대폭적으로 사면할 생각이다. 시일이 걸릴 뿐이지 종단의 대화합은 이뤄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의 생각을 돌릴 것이다. 수행자는 일반 사회인과 다르다. 한 생각 틀리면 서로 화해한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단 운영 100일 되는 날 평가회를 했으며, 100일 후 또 평가할테니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미숙한 점도 있으나, 총무원 모두 1인3역을 하고 있다. 종단발전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60여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총무원장 취임 100일 맞아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만류했다. 하나하나 사업으로 보여줄 것이다.

신도회 종단과 분리돼선 안된다. 종단과 신도회가 화합해야 하는데 전국신도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종단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중앙신도회도 서로 회장 하러나기 회장을 뽑지 못했다. 신도회장 자리를 놓고 야심을 보이면 안된다. 원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르다 차차 알게 되는 것이다.

고산 총무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단 소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학교·생협학교 등을 특화사업사업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정보다는 총무원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산스님은 또 법회 참석 횟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알고자 한다면 내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법문하러 간다. 법회에 오려면 자다가도 뛰어나간다. 하나도 고달픈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는 교구본사 순회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징계의 종류

최고의 징계는 멸빈으로, 일반 형법에 비유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회수한다. 복직이나 재출가도 불가능하다.

제직의 징계를 받으면 승적에서 제외돼 승려신분의 권리가 박탈되며,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10년이 경과하면 복적이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총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을 물론 사회복지관장사 암연합화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가능하다. 복직할 경우 승람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직 후 5년 후에는 총회의원과 총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조계종이 적극 개입키로 함에따라 불교TV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

문화유산 보존·관리 '최우선'

승격된 '문화재청'의 역할

조직·정책 강화 효율 행정 기대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관리국이 드디어 '문화재청'으로 승격됐다.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목표로 진행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틀바구니에서 기구가 확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이 지정한 문화재는 5백1점에서 7천5백4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직원은 2백52명에서 4백55명

으로 늘어난데 그쳐 지정문화재 관리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이전 보다 정책 기능도 강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확대·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국, 문화유산국, 기념물관, 기술국 등 3~4개 국이 신설된 문화재청으로 개편될 바라고 있다. 지난 해 구조조정 때 합쳐진 유형문화재과도 다시 1, 2과로 분리돼, '문화재 지정·해제·관리' 문화재 매매업자 지도·감독' 각 소속기관

소장 유물 지도·감독' '해의문화재 조사·환수' 등의 업무에 전념하고, 매장문화재, 동산문화재, 건조물(건물) 관련 업무는 '과'로 독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적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적과 신설도 바라고 있다. 또 1천5백65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 규모도 조직 확대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는 38년간 문화재행정을 전담해 왔던 일선 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7월1일부터 발표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개발공사 전 지조조사 의무화 등이 명시돼, 현재보다는 매장 및 동산문화재 관련 업무의 양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임 문화재청장은 확대된 조직으로 효율적인 문화재행정을 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신하균 문화부 장관이

"문화재 전문가를 임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문교 현 문화재관리국장과 전임 국장인 정기영 국립도서관장, 정재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발단장 등이 불명이다.

문화재청이 갖게될 위상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내의 개편 논의가 끝나는 내주에 분명해질 전망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문화재청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행정당국이 "청" 설립이 단지 관료의 밥그릇이 늘어난 데 그친다면 개악일 뿐이다.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만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는 문화계 인사들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성보(聖寶)로서의 불교문화재가 갖는 의미를 살리는 문화재정책의 확립도 문화재청의 과제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21세기 미래의 불교는 인재불사에서 부터"

제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 어린이 법사·교사 연수회

불, 법, 승

21세기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새싹들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분께 인사 드립니다. 서울,경기지역사찰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족한 저희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연합회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각 사찰의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제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 어린이 법사,교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여름불교학교와 캠프의 원활한 운영과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침체된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고 한국불교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가 제시되도록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지도법사, 교사,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도 참여하여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1999(불기 2543)년 5월 우리 기쁜날 좋은날

- 연 제 : 불기 2543년 6월26일(토)오후3시~27일(일)오후3시
- 어 디 서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 동 참 금 : 4만원(군중병은 무료, 본회 회원사찰 선생님은 10%할인) 1박3식, 간식, 연수회교재, 불교동요메이프,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 여름불교학교 준비물(포스터, 안내장, 불교학교 교재 등)
- 참가대상 : 법사, 교사 및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분
- 접 수 처 : 본회 사무국 (02)725-2201~2 FAX(02)725-2285
- 접수마감 : 5월 11일 ~ 6월10일까지 (당일은 접수 안되오니 미리 접수 바람)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단위번호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업육상)

• 여름불교학교 현수막, T셔츠, 모자, 명함, 공책, 인쇄물 등을 주문시 원가로 해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및 강의내용	강 사
6/26일(토)	14:00~15:00	접수	
	15:00~16:00	입석식 및 특강	윤지원 스님 (본회 회장/삼보사주지)
	16:00~16:50	저녁공양	
	17:00~18:30	예불 및 어린이 불교의식	성마스님 (전통불교의식연구위원장)
	18:40~20:10	어린이를 불교학교에 포교하는법	오성일 스님 (신홍사주지)
	20:20~21:50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종이접기, 공작놀이	정선주 (한국종이접기 협회사범)
	22:00~23:30	재미있는 불교동요1	배동아(불교동요 전문강사)김태은(불교음악강사)
6/27일(일)	24:00~04:00	취침	
	04:00~04:20	기상 및 세면	
	04:20~05:00	예불 및 어린이 참선 교육방법	법희스님(동국대 석림회 부회장)
	05:10~06:40	여름불교학교 운영방법	황학현(불교교육연구위원장)
	06:40~07:50	아침발우공양	형준스님(도선사,개운사 지도법사)
	08:00~09:30	즐거워 놀이로 배우는 불교동요	배동아(불교동요 전문강사)김태은(불교음악강사)
	09:40~11:10	어린이 불성(심성)개발방법	유용진(한국능률협회전문위원)
	11:20~12:50	어린이 놀이문화	김영경(EDS 전문위원)
	12:50~13:40	점심공양	
	13:40~15:00	캠프 준비와 실제	김진(신정정 문화원)
15:00~15:30	회향식		

전국 어린이 여름 캠프 및 가족캠프

- ### ◆ 어린이 여름 캠프
- 연 제 : 1999년 7월 22일~7월24일(2박3일)
 - 대 상 : 어린이 (초등학교~중2까지) 어린이 법회사찰은 단체참가 됨
 - 인 원 : 약 300명
 - 회 비 : 1인 3만원(교재, T셔츠, 2박7식 등)
 - 접수처 : 본회사사무국 (02) 725-2201-2 FAX (02) 725-2213
 - 접 수 : 7월10일까지 (당일접수 불가)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농협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업육상) • 입금 확인시 신청접수가 됩니다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수영복, 양말, 속옷, 손전등, 수건, 쌀1되 등
- ### ◆ 가족 캠프
- 연 제 : 1999년 8월 2일~8월 4일 (2박3일)
 - 어디서 : 화성 신홍사 수련원 (0339)357-3916
 - 대 상 : 참가의사가 있는 가족(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 인 원 : 50가족
 - 회 비 : 1가족 13만원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수영복, 양말, 속옷, 손전등, 쌀1되 등
 - 접수처 : 본회사사무국(02)725-2201~2 FAX (02)725-2213
 - 접 수 : 7월 20일까지 (당일접수 불가)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농협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업육상) • 입금 확인시 신청접수가 됩니다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연합회

회 장 : 윤지원
사무총장 : 법전

부회장 : 선일, 지도, 실상, 우학, 적령, 자용, 인득, 대명
지도법사단,지도교사단 회원일동